

# 다니엘서 - 제97번

엘리야의 삼중적 적용: 현대 바벨론과의 대결에 담긴 예언적 역동성의 베일을 벗기다

Jeff Pippenger  
2024-02-29

엘리야의 삼중적 적용은 마지막 때의 엘리야의 외적 요소들을 나타낸다. 엘리야는 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운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자 엘리야와 연합하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가 상징하는 상태와 경험에서 나오게 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백성은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사백오십 명이다." 열왕기상 18:21, 22.

첫째 천사나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그 시기의 사자와 함께한 이들은 사데 교회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로부터 불러내어진 자들이었다. 두 교회 모두는 엘리야의 질문, 곧 사람들이 두 의견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는 질문으로 대표된다. 그들이 머뭇거리는 두 의견은 하박국의 '논쟁'으로 나타난다. 하박국 2장의 '논쟁'은 옳은 방법론과 그른 방법론 가운데 어느 쪽이냐를 둘러싼 논쟁이다. 그 논쟁의 때가 이르면, 밀러라이트의 역사에서든 마지막 날들의 역사에서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울타리에서 내려와야 할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설령 내려온다 해도 울타리의 어느 편으로 내려서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첫째 천사의 역사와 셋째 천사의 역사 속에 한 시험을 정하셔서, 배도한 개신교의 신학적 방법론으로 대표되는 논쟁의 한편이냐, 아니면 밀러의 예언 해석 규칙(Future for America가 채택한 규칙 포함)을 따르는 방법론이냐, 어느 쪽이 늦은 비의 참된 기별인지를 드러나게 하셨다. 미국에서 곧 임할 일요일 법령과 함께 시작될 갈멜산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와 1844년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하신 것처럼, 자신의 대표 사자가 누구인지를 지목해 밝히시도록 요구한다. 엘리야 때와, 지켜보기만 하면서도 입장을 정하기를 꺼렸던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방법론은 공개된 예언들의 성취를 통해 확인되었고 또 확인될 것이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은 이해되어야 한다. 서로를 해석한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진리를 세상에 전한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언들이 성취됨으로써, 스스로 설명될 것이다. Kress Collection, 105.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물을 살랐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던 이들에게 엘리야가 자신의 대표자임을 확증해 주셨지만, 그때가 되어서야 아합과 이세벨과 그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와 같은 일은 밀러주의 역사에서 1844년 10월 22일을 앞두고도 일어났고, 1844년 10월 22일로 예표된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을 앞두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불행히도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미 그 문제에서 잘못된 편을 선택한 셈이 된다. 엘리야 사자의 선택은 그가 아합과 이세벨과 그녀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물을 살라 그 확증이 이루어진 후,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며,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에서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통치 기간을 끝낸다. 그때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던 때에 해당한다. 그 후에 비가 총만히 쏟아지기 시작했다.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전령과 그의 기별은, 그 문맥 속에서 배교한 개신교(엘리야의 증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이자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세력 가운데 하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무리와 대조되어 식별되었다. 하나님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 새롭게 식별된 참된 예언 운동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도록 정하셨으나, 그 운동은 라오디게아의 상태로 전환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된 교회가 되면서 더 이상 '운동'이 아니게 되었다.

첫 번째 엘리야의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말세의 셋째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규명하고 확정하기 위해 둘째 엘리야의 예언적 특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성취한 자로 지목하셨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5, 6.

예수께서 요한을 오실 엘리야로 지목하셨지만, 요한은 오실 엘리야에 관한 예언의 모든 요소를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다. 이는 셋째이자 마지막 엘리야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오기 때문이며, 그 날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일곱 마지막 재앙의 때이다. 그럼에도 요한은 둘째 엘리야였고, 그의 증언은 첫째 엘리야의 것과 합쳐져 셋째이자 마지막 엘리야를 밝히고 세운다.

엘리야가 현대 바벨론의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삼중적 표상과 맞섰던 것처럼, 요한도 로마 권력(헤롯), 부정한 여자(헤로디아), 그리고 그녀의 딸(살로메)과 직면했다. 갈멜 산은 1844년 10월 22일을 예표했으며, 그것은 다시 미국의 일요일법을 상징한다. 일요일법 위기 때 삼중 연합이 형성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교황권 제도를 강제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의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뻗어 로마 세력의 손을 잡게 될 때, 또 그 손을 구렁 위로 내밀어 강신술과 손을 맞잡게 될 때,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 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 자기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기 위한 조처를 마련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활동의 때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다." Testimonies, volume 5, 451.

헤롯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이교 로마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교 로마의 "열 왕"을 대표하며, 그러므로 한 시간 동안 자기들의 나라를 음녀에게 넘겨주는 계시록 17장의 열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헤롯은 아합으로 예표되었다. 둘 다 불법적인 결혼 관계에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인 아합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여자와의 혼인이 금지되어 있었고, 헤롯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 결혼했다. 두로와 바벨론의 음녀가 땅의 왕들과

행한 음행은 아합과 헤롯이 각각 이세벨과 헤로디아와 맺은 불법적 관계로 대표된다.

아합과의 갈멜산 대결은 헤롯의 생일 잔치로 상징되었다.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미국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지위를 잃고, 열 왕들이 일곱째 왕국이 된다. 그들이 일곱째 왕국으로서의 '생일'에, 헤롯은 술에 취한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자기 왕국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동의한다. 열 왕들은 자기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기로 동의하며, 거짓 선지자(미국)에 의해 미혹되어 영적으로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기 위해 하루 종일 춤을 추었고,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취한 왕을 속이기 위해 춤을 추었다. 그리하여 헤로디아의 딸은 세레 요한을 죽일 수 있도록 아합의 권한을 확보했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이 시행될 때, 미국은 교권과 정권이 반씩 결합된 왕국으로 이루어진 전 세계적 짐승의 우상을 온 세상을 속여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삼중 연합의 거짓 선지자인 미국에 의한 세상의 기만은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의 딸(살로메)의 춤으로 예표되었으니, 이세벨은 가톨릭이고 배도한 개신교는 그녀의 딸들(살로메와 같이)이다.

박해는 곧 닥칠 죽음을 수반하는 일요일법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헤로디아로 상징되는 교황권을 위해 둘째 엘리야의 머리가 베어져 바구니에 담기는 것으로 상징된다. 그때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그녀는 더 이상 잊혀지지 않으며, 늦은비가 한량없이 부어지고 십사만 사천의 기치가 들어 올려진다. 그때 세 번째 화의 이슬람이 타격을 가하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에 대한 점진적 심판이 시작된다. 그녀의 심판은 갑절로 내려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 준 그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갑절로 갚아 주라. 그녀가 채운 그 잔에 그녀를 위하여 갑절로 채우라. 요한계시록 18:4-6.

그녀의 심판은 배가되는데, 이는 그녀가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암흑시대 동안 저지른 살인들에 대하여 아직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에서, 교황권이 죽였던 자들이 제단 아래에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하나님께서 로마의 창녀를 언제 심판하시겠느냐고 묻고, 그들에게는 자신들과 같이 살해될 두 번째 순교자 무리의 수가 차기까지 무덤에서 쉬라고 말해진다. 그녀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은 배가되니,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두 번에 걸쳐 죽였기 때문이다.

그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니,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고, 또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시되, 자기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라 하셨다. 요한계시록 6:9-11.

화이트 자매는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에 관한 본문을, 하나님의 다른 양 떼가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을 받는 일요일 법령의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열 왕들이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 왕국에게 자기들의 일곱째 왕국을 주기로 합의하는 헤롯의 생일 잔치 때이다.

"다섯째 인이 열렸을 때,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무리를 보았다. 그 뒤에 신실하고 참된 이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들이 이어졌다. [요한계시록 18:1-5, 인용]" Manuscript Releases 20권, 14쪽.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헤로디아가 제2의 엘리야에게 했듯이 교황권에 의해 살해된 두 번째 순교자 집단을 이룬다. 화이트 자매도 다섯째 인을 마지막 인이 열릴 때로 본다.

'그가 다섯째 인을 여섯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간직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오 주여, 거룩하시고 참되신 이여,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피를 심판하여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선언되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만 쉬라, 이는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채워지기까지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9-11]. 여기서 요한에게 제시된 장면들은 현실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어느 때에 있게 될 것들이었다.

"요한계시록 8장 1-4절 인용됨." Manuscript Releases, 제20권, 197쪽.

암흑시대에 교황권에 의해 살해된 이들의 기도는 '일곱째 인'을 여는 때에 '기억'되는데, 이는 머지않아 있을 일요일 법령 때 '일곱째 인'이 열릴 것임을 나타내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가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가 너희에게 갚아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갑절로 더하여 갚아 주라. 그가 가득 채운 잔에 그에게 갑절로 채워 주라. 요한계시록 18:4-6.

첫째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삼중 연합과 14만 4천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결을 증언한다. 둘째 엘리야(세레 요한)는 첫째 엘리야의 증언을 반복하고 확대하며, 둘이 함께(선에 선을 더하며) 셋째이자 최종 엘리야의 예언적 특성을 식별하고 확립한다. 셋째 엘리야는 시작을 상징하는 엘리야(밀러)와 끝을 상징하는 엘리야로 대표되는데, 이는 첫째 천사의 운동이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반복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들에게 예언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자리를 정해 주셨고, 그들의 사역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이며, 이후에 오는 이것과 병행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1888년 자료, 803, 804.

세 번째 엘리야는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그것이 시작과 끝의 엘리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첫 번째와 마지막 엘리야는 모두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또는 셋째 천사의 운동을 대표한다.

“세레 요한의 사업과, 마지막 날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가 백성을 그들의 무감각에서 일깨우는 자들의 사업은 여러 면에서 동일하다. 그의 사업은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의 예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로 오실 것이다.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여야 한다. 이 예비하는 사업에서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곳이 평탄하여질’ 것인데, 이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며, 다시 한 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Southern Watchman, March 21, 1905.

엘리야의 삼중 적용은 엘리야와 그와 연관된 운동이 현대 바벨론의 삼중연합과 벌이는 대결을 나타낸다. 이는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삼중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선은 그 운동과 사자의 내적 역학을 나타낸다. 두 가지 삼중 적용 모두에서, 사자와 운동의 세 번째이자 최종 성취는 시작의 성취와 끝의 성취를 각각 나타내는 알파와 오메가로 표상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엘리야는 셋째 천사의 운동을 대표하는데, 이는 십사만 사천의 운동이며,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가 이를 때 그들이 기치로 세워져 바벨론에서 큰 무리를 불러낼 것이다. 그 때가 오기 전에, 평안과 안전을 말하는 거짓 늦은 비 기별을 내세우는 거짓 운동과 대조되어 그 사자와 그 운동이 식별될 것이다.

참된 메시지와 거짓된 메시지, 그리고 그 전달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메시지의 성취 여부다. 이 연재는 2023년 7월 말에 시작되었고, 10월 7일의 학살 훨씬 이전부터 이 글들은 참된 늦은비 기별이 셋째 화의 이슬람을 지목하며 그 기별이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었다. 또한 영감에 따르면 그때 시작된 열방의 격분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고 지적했으며, 그러므로 지구에 닥친 그 격분과 혼란은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 격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저희 다음 글에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거의 우상숭배에 내어주어진 수천 개의 도시들에 임박한 멸망을 자각하기만 한다면! 그러나 진리를 선포해야 할 많은 이들이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 회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임할 때,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비판하고 허물어뜨리려는 성향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빛이 세상에 비치는 것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비난과 정죄는 그칠 것이다. 원수의 세력들이 전투를 위해 집결하고 있다. 치열한 투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형제자매들이여, 서로 굳게 뭉치라, 굳게 뭉치라.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라. '너희는 "동맹"이라 말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는 너희에게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 모두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울무와 덧이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부서지며, 울무에 걸리고, 사로잡히리라.'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다. 그 배우들, 곧 그 거민들은 마지막 위대한 드라마에서 자기 몫을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은 사라졌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탁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류 대중 가운데 일치가 없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반역한 백성들에 관하여 그분이 가지신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혼란과 무질서의 요소들이 한동안 권세를 잡도록 허용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한 권세가 드라마의 마지막 위대한 장면들을 일으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사탄이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오며, 비밀 결사로 서로 결속하고 있는자들 가운데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역사하는 것이다. 결탁하려는 열망에 굴복하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원인 뒤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죄악은 거의 그 한계에 이르렀다. 혼란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머지않아 큰 공포가 인류에게 닥칠 것이다. 종말이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곧 세상에 엄청난 놀라움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9월 10일.